▶▶ 매일 INDEX

3면
"고용이 가장 큰 걱정
일자리 보존에 역량 집중"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음 3월 22일) 제251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취약계층 희망심는 전북도 배려행정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선지급에 소비상품권도 추가 지급

4만7000여명 생활안정 앞장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에게 3월분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한 전라북도가 소비상품권도 신속한 추가 지급으로 어르신 4만7000여명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111억여원 규모의 소비상품권을 5월부터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을 돕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 행정으로 코로나19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오는 20일 이후 비대면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한 전북도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 4만7400명이 월간 활동비 27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1000원 이상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5만9000원의 상품권을 4개월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1억8600만원 가량의 전액 국비 추가 예산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할 상품권의 종류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도내 시군을 수요 조사한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희망한 전주시 외에 13개 지역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0일까지 3월분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4만7400명 중에 선지급 희망자 3만9489명에게 106억44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어르신 활동비 선지급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2월부터 부분적, 지역별로 중단되다 도내 전 공익활동 사업으로까지 번진데 더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 생활고가 우려된다는 지역 여론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도는 이달 초 문화관광해설사와 생활체육광장지도자 등에게도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 행정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활동비 선지급과 상품권 추가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의 이런 노력들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투표 참여 독려 퍼포먼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주시 노송동 제5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퍼포먼스는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혁신 아이디어 '수혈'

2020년 도민 · 공무원 테마 제안 공모

전북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대응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0년 도민·공무원 테마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민과 공무원 테마제안을 이원화하여 추진했지만, 금번 테마제안은 코로나19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민과 공무원 테마제안 주제를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편함 해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일자리, 경제, 농업·농촌·해양, 관광, 보건복지, 안전 등 각 분야별로 테마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도민과 공무원은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가 가능하고 전라북도 도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로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공모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과 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본심사에서 온라인 정책선호도 조사를 통한 온라인 심사 10%, 오프라인 심사 90%가 반영된다.

도는 7월경 공모심사위원회의 최종 선정심사로 도민 분야 6명, 공무원 분야 8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금은 도민분야는 금상 150만원, 은상 120만원, 동상 70만원이고 공무원분야는 금상 100만원, 은상 80만원, 동상 40만원이 수여된다.

김미정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테마제안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적인 정책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주 후보 검찰 고발

"한누리넷 50% 지분 고의 누락"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북 전주시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넷은 IT관련 도소매·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김 후보가 1억 원의 주식지분(50%)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친과 형 등 가족까지 포함해 9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이다.

그러나 김성주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며 해당 지분을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최근 입찰담합과 김 후보가 도의원 재임시절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1일) 김성주 후보가 신고한 재산내역 가운데 김 후보의 보유 주식(한누리넷) 누락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24호) 선관위 결정문에는 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 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했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시에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2면에 계속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중앙선관위가 최근 정부의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 완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동선 및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투표마감 시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여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과 다른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한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로 투표 마감시각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소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므로 개표 개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새로운 미래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